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CHINA

중국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8/03~08/09

1. EU 디미니미스 폐지에 따른 항공화물 감소와 물류 재편
2. 태평양 물동량 급증과 해운 운임 상승 압력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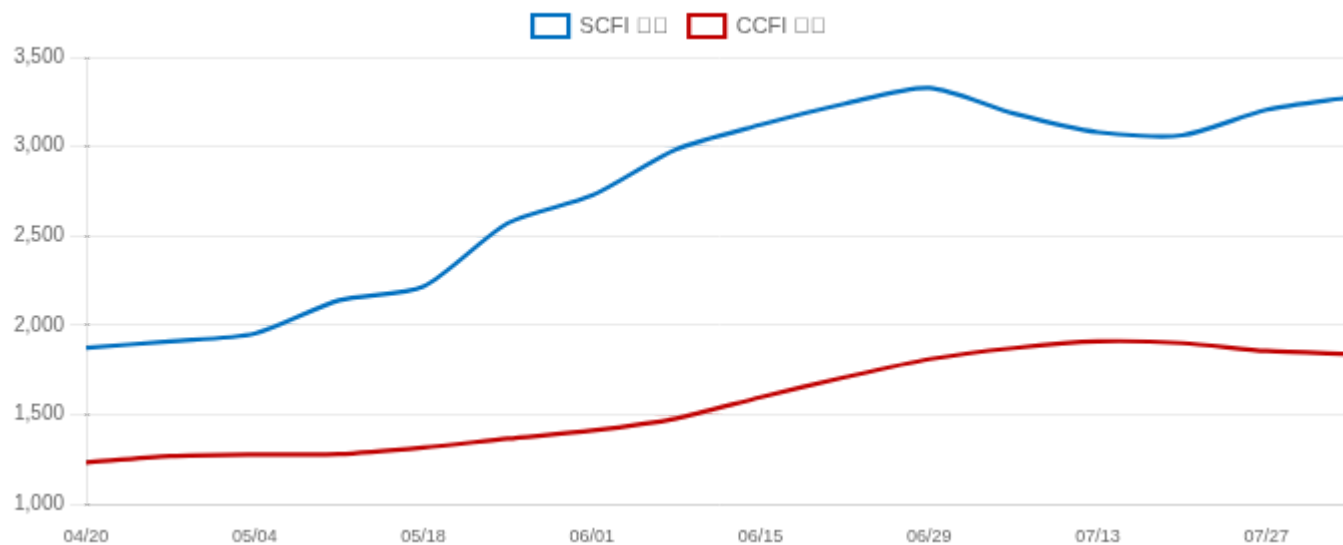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중국 물류·통상 환경은 EU의 디미니미스 폐지로 촉발된 항공 화물 급감과 대안 노선의 부상, 그리고 태평양 물동량 급증에 따른 운임 상승 압력이 동시에 전개되며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함. 홍콩·중국발 유럽 항공 화물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유럽 철도 운송이 통관 효율화와 인프라 확장을 기반으로 빠르게 대체 운송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이러한 항공 화물 감소와 철도 운송의 약진은 중국발 유럽행 물류 경로의 다변화를 촉진하며 철도 운송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함. 동시에 태평양 노선에서는 중국발 수출 화물의 조기 선적이 집중되며 선사들의 성수기 할증료 도입 등 운임 인상으로 이어져 해상운임 상승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중시키고 있음. 이로써 수출기업들은 물류비 부담과 선복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종합	3,276.14 pt	08/03	+2.2%	+2.9%
CCFI 종합	1,839.61 pt	08/03	-0.9%	-1.8%
KCCI 중국	56 \$/FEU	08/03	+1.8%	-1.8%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CCFI · KCCI) · 기준 08/03

EU 디미니미스 폐지에 따른 항공화물 감소와 물류 재편

EU의 디미니미스 폐지로 홍콩·중국발 유럽 항공 화물이 급감하는 가운데, 중국-유럽 철도 운송은 통관 효율화와 인프라 확장에 힘입어 대안 노선으로 급부상함.

EU가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 저가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하고 건당 3유로의 고정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 홍콩발 유럽 항공 화물 물동량이 직격탄을 맞음. 월드에이시디 데이터에 따르면 홍콩발 유럽 유상 중량은 29주차에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고, 26~29주차 평균도 18% 줄어드는 등 5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 중국 본토발 유럽 물동량 역시 같은 기간 평균 8% 감소하며 동반 하락함.

항공 화물 감소의 배경에는 EU의 규제 강화 외에도 미-중 통상 마찰과 미국의 디미니미스 폐지로 인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 재편이 자리함. 특히 홍콩은 저가 전자상거래 화물의 집결지 역할을 해왔으나, 새 규정으로 직항 수요가 위축되며 물동량이 예상보다 깊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대유럽 항공 물동량을 13%까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항공 운임도 하락세를 보여, 중국발 유럽 현물 운임이 전주 대비 5% 하락한 킬로그램당 4.17달러,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대유럽 운임은 4.63달러로 떨어짐. 반면 동일 기간 글로벌 항공 화물 시장은 5% 성장해, EU 디미니미스 폐지가 특정 노선에 집중된 충격임을 확인시킴.

한편 해상 운송의 불안정성과 항공의 비용 부담 증가 속에서 철도 운송이 대안으로 부상함.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2026년 7월 17일 기준 신장 알라타우-홀고스 통로를 통해 운행 1만 회를 돌파했으며, 스마트 통관 도입으로 수출 통관 시간이 6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효율성이 크게 개선됨. KTZ 역시 중국-유럽 물동량 증가에 대응해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며, 연간 처리 능력을 5천500만 톤에서 1억 톤으로 확대할 계획임.

- 홍콩발 유럽 항공 화물 물동량 29주차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 5주 연속 하락세
- 중국 본토발 유럽 항공 물동량 26~29주차 평균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
- 중국발 유럽 항공 운임 전주 대비 5% 하락(킬로그램당 4.17달러)
- 중국-유럽 철도 운행, 2026년 신장 통로 1만 회 돌파 및 통관 시간 6시간→1시간 단축
- KTZ, 중국-유럽 철도 인프라 100억 달러 투자로 연간 처리 능력 1억 톤 목표

전망

EU 디미니미스 폐지의 충격은 당분간 항공 노선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저가 전자상거래 직항 수요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 중국-유럽 철도는 통관 효율화와 용량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해상과 항공을 보완하는 중간적 대안으로 입지를 넓힐 것임. 다만, 미-중 통상 환경 변화와 EU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따라 철도를 포함한 복합운송 수요는 더욱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음.

시사점

전자상거래 화주 — 저가 직항 항공 대신 철도·해상 복합운송을 활용한 물류 전략 수정이 필요하며, EU 통관 비용 증가에 대비한 가격 정책 재수립이 요구됨.

포워더 — 항공 물동량 감소 리스크에 대비해 철도 운송 상품을 다각화하고, 중국-유럽 철도 노선의 통관 편의성을 활용한 서비스 차별화가 필요함.

항만·선사 — EU 규제에 이탈하는 항공 화물을 철도 운송으로 유치하기 위해 카스피해 횡단 노선 등에서의 피더 서비스 강화 및 선대 투자가 요구됨.

참고자료: Asia Cargo News, 홍콩¹ 유럽 항공화물 24% 급감...EU 디미니미스 폐지 직격탄 · CGTN, 신장 통과 중국발 유럽행 철도 1만 회 돌파...2026년 기록 · Transport Corridors, 중국발 유럽행 화물, 해상서 철도로 전환...KTZ, 10조원 투자 (검색일: 2026-08-09)

태평양 물동량 급증과 해운 운임 상승 압력

중국발 수출 화물의 조기 선적이 태평양 물동량 급증을 주도하고 있으며, 선사들은 성수기 할증료 도입 등 운임 인상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음.

2025년 7월 기준 태평양 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함. Matson의 2분기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으며, 7월까지 중국-미국 익스프레스 서비스가 만선 상태를 기록함. 미국 서안과 동안 주요 항만 물동량도 롱비치항(6월 전년 동월 대비 10.6% 증가), 로스앤젤레스항(12% 증가), 뉴욕·뉴저지항(12% 증가)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성수기가 조기에 도래했음을 나타냄.

물동량 급증의 주요 원인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발 수출 수요 강세와 화주들의 선적 앞당기기(프론트로딩)임. 화주들은 이란 전쟁 관련 관세 논의의 불확실성, 추가 운임 인상(GRI) 및 유류할증료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성수기 이전에 물량을 서둘러 운송함. 이러한 공급망 불안에 대한 대비 움직임이 수요를 인위적으로 집중시키며 물동량 증가를 부추김.

이에 따라 선사들은 수익성 방어에 나서며 성수기 할증료(PSS)를 도입하는 추세임. CMA CGM은 8월 10일부로 극동발 아프리카 4개국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 세이셸행 화물에 컨테이너당 250~750달러의 PSS를 부과함. 특히 중국발 마다가스카르행은 타극동발 250달러 대비 400달러로 높게 책정되는 등 화물 원산지에 따른 차별 적용이 나타남. 이는 성수기 수요 초과가 아프리카 항로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함.

- Matson의 2분기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 중국발 익스프레스 서비스는 성수기 내내 만선 전망
- 미국 롱비치항(10.6%), 로스앤젤레스항(12%), 뉴욕·뉴저지항(12%) 등 6월 물동량 동반 상승
- CMA CGM, 8월 10일부터 극동발 아프리카 4개국에 TEU당 250~750달러 PSS 도입, 중국발 마다가스카르행 TEU당 400달러로 차등 적용
- 화주들의 운임 상승 및 관세 불확실성 회피 목적의 선적 앞당기기가 물동량 증가의 주요 동인

전망

태평양 항로의 타이트한 수급과 화주들의 불안 심리가 지속되면서 3분기까지 높은 운임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4분기에는 전년도 비정상적 호황에 따른 기저 효과로 계절적 수요 패턴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어 물동량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수 있음. 선사들의 아프리카 등 타항로 PSS 도입 사례는 성수기 운임 인상 압력이 글로벌하게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함.

시사점

화주 — 성수기 운임 상승과 공간 부족에 대비해 조기 선적 일정을 확보하고, 장기 계약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함.

포워더 — 선복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화주에게 긴 리드타임과 예산 반영을 권고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항만·선사 — 예상보다 빠른 성수기 진입으로 터미널 혼잡 관리와 추가 운임 수익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